

쌀 완전개방 대비 고성오대미 명품화 박차

고성군,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 조성 ... 황토해풍잡쌀 생산단지 30ha 토성농협과 계약재배

고성군이 청정 이미지를 살린 고성오대미 명품화 사업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고성오대미 명품화사업은 탐라이스급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 62ha와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30ha,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재배단지 80ha등을 조성했다.

군은 또 황토해풍잡쌀 생산단지를 30ha로 확대해 토성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틈새시장 확보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기능성 쌀 생산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지역적응 시험포와 죽왕면 아촌리에서 기능성 특수미 15품종을 선발해 적응시험연구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채종단지도 3.5ha를 조성해 연말에 희망농가에 보급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농경지의 70%가 벼농사인 고성군의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쌀 수입 완전개방에 대비해 청정이미지를 살린 고품질 고성오대미 명품화야말로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전통주 이렇게 빚으세요”

한여농 임원 대상 전통주 제조교육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연구실에서 실시한 전통주 제조교육에서 흑미 막걸리 제조를 위해 흑미와 찹쌀을 혼합해 술밥 만들기 과정을 하고 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식품가공연구실에서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회장 안재숙) 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주 제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전통주 제조 교육은 농촌여성 후계세대인 한국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성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제조교육을 실시해 농산물 가공 기술습득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업기

술센터 농촌자원식품 이승현 직원이 강사로 나와 고성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쌀탁주인 흑미탁주와 다시마 찹쌀탁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참가자가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조된 탁주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가 좋아요’ 라는 주제로 장신2리 소풍령마을 유원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 하계 수련회에서 사용된다. 박승근 기자

은퇴 농업인 매월 보조금 지급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사업’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가 고령 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이양 직불 보조금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올해 65세 이상 은퇴 고령농업인 193명에게 모두 4억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

모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의 제도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로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고 일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것이 조건이다. 단, 은퇴 후에도 지급을 위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1ha 당 연간 300만원을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원광연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광고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인 : 거진어촌계 사무보조 직원, PC가능자, 682-2782

생활광고 접수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대우증권(000680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2011년 8월 휴가철 증시는 상당한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하락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하락을 예상한 제도권의 글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글은 결과가 나타난 이후 원인에 대한 분석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긍정적인 글 일색이고 하락할 경우에는 두려움만 가중 시키는 글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하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이제는 희망을 찾아야 할 때이다. 항상 공포심이 최고조에 이르면 심리를 역이용하는 메이저가 출현하게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현 구간은 단기적인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심리가 높다. 그러나 급반등이 나오면 좋겠으나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전환시키는 흐름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온 이후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될 것이다. 우량주 칼럼이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은 우량주라는 개념

이 필요 없는 시점이다. 돈의 힘에 의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하락의 일봉 저점마다 지지 구간이었지만 시장은 추가 하락의 길을 걸어왔다. 기술적인 저점이라면 그 자리를 저점으로 인식한 큰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세가 가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월요일 지수는 1800선을 찍고 꼬리를 길게 달았다.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는 인위적으로 투매를 유도했으며 공포심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경우 지수는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쉽게 반등 흐름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변동성을 키우는 과정이 필수이며 1800선을 재이탈하는 흐름도 예상하면서 분할매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지수가 급락을 한 상황이기 낙폭이 큰 종목을 노리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관점에서 증권주인 대우증권을 15000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